



당당한 젊은 포장학도 “포장은 나의 인생”

플라스틱 포장 분야로 진출 희망

이현근 / 신성대학 포장공학과

“우리 포장학과를 위해 힘쓰시고 노력하신 이수근 교수님, 안병국 교수님, 박근실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보다 더 열심히 하는 학생이 받아야 되는 장학금인데...”라며, 겸손하게 웃는 신성대학 포장공학과 이현근군에게 제5회 한용교포장인상 장학생 부문의 수상이 돌아갔다.

이현근 군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 생활을 먼저 시작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새로운 전문 지식을 배워야 할 필요성을 느껴 대학 진학을 결심했고, 희소성이 있는 학문을 공부하고 싶은 생각에 포장학과를 선택하게 됐다.

“사실 포장학과에 입학하기 전에는 과자 봉지나 박스가 포장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입학한 이후 완충포장, 방수포장, 포장 자동화와 같은 전문 용어를 배우면서 처음에는 많이 생소하고 어려웠지만,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습니다.”

이현근 군은 현재 학과 동아리인 ‘보따리’에서 활동할 뿐 아니라, 교수들의 연구 프로젝트 사업에서 보조로 도움을 주며 강의실에서 배우지 못한 실무적인 경험을 많이 쌓아가고 있다. 그는 공부를 하는데 있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항상 ‘노력’하는 자세를 잃지 않으려 한다.

이현근 군은 포장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느끼는 애로사항으로 포장학과의 턱없는 부족을 얘기하면서 “많은 대학에 포장학과가 개설돼 우수한 인재들이 배출되고, 학문으로서의 탄탄한 기반이 빠른 시일 내에 구축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포장을 알면 알수록 매력을 느껴 내 인생을 걸어보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는 이현근 군은 포장에 대한 애착만큼이나 큰 포부를 갖고 있는데, 그 중 10년 후 포장 업계에 ‘이현근’이란 이름 석자를 알리겠다는 최종 목표가 있다. 그는 플라스틱 포장에 관심이 많아 대학 졸업 후, 플라스틱 포장 분야로의 취업을 계획하고 있다.

국내 포장계를 이끌 충분한 가능성을 지닌 이현근 군은 포장 업계에 작은 바램이 있다. 포장학과 학생들이 전공 선택에 자부심을 느끼고 학과 공부에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여러 장학금 제도가 자리잡히길 바란다고.

현재 그는 6월에 있을 ‘포장기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포장은 나의 인생”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이현근 군... 자신감 넘치는 포장학도의 10년 후 모습을 기대해 본다. ☞

박초혜 기자